9 깔딱질 · 깔때기 · 포깍질엔 물이 최고지!

"소리야, 할머니 따라갈래?"
"어디 가시는데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간단다."
"네, 좋아요!"

여덟 살 '소리' 양은 할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와 전철을 번갈아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교외에 있는 한 중화요릿집이었어요. 음식점엔 할머니의 친구들이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머니 친구들은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아 그동안 못다 한 얘기들을 도란도란 나눴어요. 잠시 후 짜장면·짬뽕·탕수육 등 맛있는 중국 요리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소리는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먹은 나머지,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딸꾹~ 딸꾹~."
"어머, 소리야. 깔딱질 하는구나. 내가 등 두드려주마."
"깔때기엔 물 먹는 게 최고지. 소리야, 여기 물 있다."

할머니들은 소리의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잠시 후 가까스로 딸꾹질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딸꾹질이 멈추자마자, 소리가 외쳤어요.

"할머니들! 깔때기는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깔딱질은 또 뭐예요?"

딸꾹질을 부르는 말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깔딱질'과 '깔때기'도 그 중 하나인데요. 깔딱질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깔때기는 강원 일부 지역과 경북 문경 등에서 딸꾹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충청 일부 지역에선 딸꾹질을 '껄때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라도 지역에선 '포깍질'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은 딸꾹질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피게'(평안)입니다. '피께'(평북), '피기'(평남·황해), '패기'(함경)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해요.

잠깐, 여기서 생활 상식 하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면 30초가량 숨을 참아보세요. 종이컵에 입을 대고 숨을 쉬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딸꾹질이 나올 땐 이 두 방법을 한 번 사용해보세요!



1 '깔딱질 · 깔때기 · 포깍질엔 물이 최고지!' 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깔딱질' 은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 '딸꾹질' 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봅시다.

2 여러분이 '딸꾹질' 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3 '딸꾹질' 에 관한 경험을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